

현대건설과 삼성건설, 공동작업 시도

정화조 시공도면 표준화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이 아파트의 정화조 시공도면을 표준화 하기 위해 공동작업한 결과 50톤 단위의 표준도면을 마련하고 지난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의 이같은 노력은 개방화 시대를 맞아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소품질의 시공을 증진시키므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현대가 이미 표준화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삼성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며 앞으로 D산업등도 참여 의사를 보임에 따라 표준화 작업이 가능한 아파트의 시공도면이 점차확산될 것으로 보여져 관련업계는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화조는 민원 발생률이 높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중의 하나로 어느 시공현장의 특성에 따라 고려되는 것이 아니어서 도면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현대건설에서 정화조는 과거 건축에서 시공하였으나 많은 하자발생으로 지난 92년부터 설비에서 시공하게되면서 하자발생률이 매우 낮아짐은 물론 지난해는 입주자들로부터 호평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공도면 표준화를 확산하게 된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정부의 환경법 강화에 대응

키 위해 시공 완료된 아파트의 관리회사에 정화조 관리 전문가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정화조 사후관리 업무를 준공후 3년간 주기적인 점검(매월 2회이상) 및 기술지도를 의문화 하므로써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정화조 시설의 내부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부 환기덕트는 물론 배관 및 잡철물과 행거, 볼트와 너트의 재질까지 STS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물청소 등을 자주 하므로써 정화조 내부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들어 환경오염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정화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환경처가 개정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96년 7월부터 적용되는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일 경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80이하로, 1일 처리용량이 100~200㎡일 경우 60이하,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일 경우 40이하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정화조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경과조치가 없이 기존에 시공되었거나 그동안 시공중인 공사의 경우 구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새로운 걸계로 대처해야 하

는 자구책을 찾고 있으나 마땅한 대비책이 없어 난감한 실정이다.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김연호 이사는 법 개정에 앞서 업계의 대응책을 마련한 뒤 충분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에 힘입어 앞으로 단위세대 내 5개 평형의 난방을 비롯 위생, 소화 가스 등이 배관을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아파트의 위생, 난방, 소화 등을 이종라인으로 하는 등 국제수준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여줘 국제화된 시방서로 어느 외국업체에도 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의 표준화 작업은 도면과 시공의 일체화로 아파트 품질의 균일화는 물론 설계에 드는 시간 및 인원, 비용 등의 절감을 꾀할 수 있는 부대효과도 노린다.

현대건설은 올해 말까지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한국형 시방서로 균일화된 시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전문조합

제16회 정기총회 개최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여관구)은 10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제 16회 정기총회를 갖고 공석중인 비상임감사에 대한 보선을 실시, <주>한범의 최규인 대표이사를 비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신임 최규인 비상임감사는 꼼꼼한 업무스타일에 책임감이 투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업무의 하부위임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최고의 경영이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최대표이사는 수리에 밝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며 전문업계에 많은 지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임 최규인 비상임감사는 전북 전주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법정대를 졸업하였으며, 1970년 풍성모듈라건설<주>를 시작으로 '74년 한국조립건설<주> 상무이사, '75년 로얄통상<주> 상무이사 직을 거쳐 '76년 <주>한범의 대표이사에 부임했다. 1986년에는 건설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재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사업협의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임원명단

(가나다순)

직 위	성 명	상 호
회 장	김 기 삼	우남건설
회 원 부 회 장	여 동 근	여동건설
"	김 삼 용	대지미도건설
"	김 종 정	신일건구사
상 임 부 회 장	홍 재 혁	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원 이 사	강 석 주	마당, 신임
"	김 병 오	대우조경
"	김 상 기	영화공업
"	김 영 선	영일지질, 신임
"	김 영 식	서울기계상사, 신임
"	김 이 현	아티포트, 신임
"	김 홍 태	태영기업
"	노 재 군	홍성건설, 신임
"	마 명 수	우남토건
"	박 정 호	선산토건, 신임
"	박 영 수	럭키호남판매, 신임
"	오 상 기	세정방수, 신임
"	이 석 조	금호개발, 신임
"	이 성 기	전일실업
"	임 병 옥	현대본드건설
"	장 석 수	대일건설
"	장 장 룰	삼대양개발
"	정 흥 래	대지토건
"	허 만 수	중앙건설
상 임 이 사	이 정 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원 감 사	정 해 원	두풍개발
상 임 감 사	이 재 돈	대한전문건설협회